

kagro.org



Volume 77

2018

Number 1





TASTE THE FEELING<sup>®</sup>

Congratulations  
KAGRO International  
on your 58th  
annual board meeting





# THE ORIGINAL LIGHT PILSNER.

#ITSMILLER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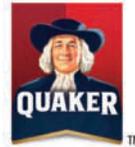
**GREAT BEER GREAT RESPONSIBILITY**  
©2010 MILLER BREWING CO., MILWAUKEE, WI  
An analysis (12 fl oz): 96 cal, 3.2g carbs, <1g protein, 0.0g fat



# PEPSICO



Tropicana



**QUAKER OATS**  
OLD FASHIONED

AS PART OF A HEARTY HEALTHY DIET, THE SOLUBLE FIBER IN Oatmeal Can Help Reduce Cholesterol

## 목 차 (Index)

회장 인사말	6 ~ 7	President Message	6 ~ 7
이사장 인사말	8	Chairman Message	8
축사	9 ~ 10	Congratulatory Message	9 ~ 10
KAGRO 뉴스	11 ~ 15	KAGRO News	11 ~ 15
한상대회 뉴스	16 ~ 17	Korean Business Convention News	16 ~ 17
산업 뉴스	18 ~ 21	Industry News	18 ~ 21
경제 뉴스	22 ~ 26	Business News	22 ~ 26
건강 뉴스	28	Health News	28
회장단 및 스폰서 소개	30	Board Members & Sponsors	30

## 제 15 대 집행부 명단

### Kagro International Executive Member & Board of Directors

#### Officers

Washington D.C	회장	이요섭	Lee, Yo Sup
Southern California	대외 수석부회장	김중철	Kim, mike
Delaware	대내 수석부회장	송영석	Song, Mike
Central California	부회장	장종희	Chang, jong hee
Arizona	부회장	최인준	Choe, Calvin
Colorado	부회장	연규산	Yeon, Sean
Harrisburg, PA	부회장	이정희	YI, chong
Washington D.C	부회장	유홍규	Yoo, John
New York	부회장 (총무부)	박광민	Park, kwangmin
Maryland	부회장 (섭외부)	김 혁	Kim, Domingo
Washington D.C	부회장 (재무부)	김형묵	Kim, Shawn
Colorado	부회장 (홍보부)	서천룡	Suh, John
Arkansas	사무총장	이창현	Lee, Chang Heon

#### Auditors

Maryland	감사	김재만	Kim, Jae Man
Philadelphia	감사	이승수	Lee, Seung

#### Board of Directors

Maryland	이사장	송기봉	Song, ki bong
Philadelphia	부이사장	이창희	Lee, Justin
Harrisburg, PA	부이사장	나광렬	Na, Kwang yol
Southern California	부이사장	한우태	Han, wootae

#### Advisors

Washington D.C	고문	김기옥	Kim, kiok
Southern California	고문	김양일	Kim, Yang il
Philadelphia	고문	전기풍	Jeon, Ki Pung
Southern California	고문	김치현	Kim, David H.
New York	고문	구군서	Ku, Andrew
Oregon	고문	김주한	Kim, Ju Han
Maryland	고문	김현주	Kim, David
Delaware	고문	한용웅	Han, Yong wong
New York	고문	허성칠	Heo, Seong C.



## “총회를 통해 새 회장단의 계획과 비전 제시”

존경하는 국제 한인식품주류상 총연합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연한 봄의 기운이 물씬 풍기는 4월입니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이 극적인 평화외교에 나서면서 극한 대립으로 치달던 북미간에도 실낱같은 평화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미국의 한미 무역협정의 재협상 요구와 보호무역주의 추구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현실화하며 세계 경제의 불투명한 미래와 위축에 모든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것이 작금의 상황인듯 합니다.

이번 58차 총회는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 대비한 대책마련을 위한 논의와 15대 임원들이 처음으로 주체하는 회의로 새로운 회장단의 계획과 비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정관 개정의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간 새로 구성된 정관 개정위원회의 노력으로 각 췌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진 새로 만들어진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수고하신 정관 개정위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우리의 역량과 결속을 강화해 협회의 위상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전국에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임원 여러분 그리고 김 중철 LA 췌터 회장님과 이 지니 사무총장님 이하 이번 총회를 헌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요섭  
국제 한인식품주류상 총연합회 회장

## “ Future Plan & Vision is announced by the Board Meeting ”

Greetings to my fellow members and sponsors,

It is already April and full of Spring energy.

With North Korea’s participation in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North Korea and South Korea have begun a dramatic peace diplomacy. On the contrary, renegotiation demands of KORUS FTA, the pursuit of protectionism, and the trade war with China is becoming the focal point of this unclear world economic future.

I hope that this 58th Annual Board Meeting will be a place to discuss the impacts of the current world economic situation and also an opportunity for the 15th Presidency to discuss and decide on the final amendments to the changes to the by-laws. I’d like to thank the Amendment Committee in taking the lead collecting the opinions of the various chapters with changes to the by-laws.

Finally, I would like to thank all of you who came from all over the country and the LA executives, Kim Jung Chil, President of LA Chapter and Geni Lee, Secretary of LA Chapter, for all their support. Thank You,

Yo Sup Lee

President of KAGRO INTERNATIONAL  
International Korean Grocers and Licensed Beverage Association



## 국제한인식품주류상총연합회 이사장 인사말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잔설이 가지지 않은 햇빛 들판에 피어 오르는 푸른 싹을 보며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실감하며 자연의 섭리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60년 만에 돌아오는 황금 개띠 해를 맞아 모든 회원 여러분 가정과 사업에 건강과 번영이 함께하기를 우선 기원합니다.

지난 6년 동안 총연과 동포 경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허성칠 회장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 회장을 보필하며 힘을 보태신 임광익 이사장님과 임원이사 여러분들의 헌신에 마음 속 깊은 감사의 말씀 함께 드립니다.

무술년 황금 개띠의 해에 출범한 15대 총연은 역대 집행부의 노력과 성과를 거름 삼아 안정과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다 젊어지고 보다 전문적인 집행부의 계획에 모든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안정된 삶과 번영된 미래를 후손들에게 물려 주려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힘을 보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를 위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기 보다는 경청과 참여를, 성급한 독촉 보다는 신중하고 차분한 기다림,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강한 멤버십을 견지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첫 술에 배 부를 수 없듯이 15대 집행부의 초기 행보가 모든 회원 여러분의 기대를 단숨에 채우지 못할 수도 있으며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장 이하 모든 임원이사들이, 모든 관계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전력 질주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며 회원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 주시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단언할 수 있습니다. 새 봄에 회원 여러분 가정과 사업이 일취월장하기를 다시 한 번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송 기봉

국제 한인식품주류상 총연합회 이사장



## “세계한상대회 참여와 한상네트워크의 활성화”

존경하는 국제한인식품주류상총연합회 회원 여러분, 미국 LA에서 “제58차 국제한인식품주류상총연합회 총회”가 개최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총회를 준비해오신 ‘국제한인식품주류상총연합회’ 이요섭 회장님과 송기봉 이사장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국가 간, 기업 간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고 기술혁신에 따른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고 있는 최근의 글로벌 환경 속에서 세계 각국에 뿌리내린 한민족 경제인들은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모국과 재외동포사회가 함께 가꾸어 온 한상네트워크는 이제 한국경제의 큰 자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세계한상대회와 한상넷을 통해 한상의 높은 가치와 잠재력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모국과 재외한인경제 공동체간 유익한 협력의 증진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만이 가진 우수한 민족성을 살려 한상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재외동포 경제인들이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세계시장 공략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함께 짜나간다면 머지않은 시간에 세계 속의 한민족으로서 그 위상을 드높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친애하는 국제한인식품주류상총연합회 회원 여러분!

국제한인식품주류상총연합회는 1989년 발족한 이래 북미주 지역에 21개 지역 협회, 2만여명의 회원을 가진 명실상부한 미주 최대 한인 경제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지난 29년간 여러분들은 구매 유통 수입 및 수출의 기회와 시장 조사,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괄목할 만한 사업성과를 거둬 한상네트워크 구현에 기여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한인식품주류상총연합회가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재외동포 경제단체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가교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외동포 기업인들의 교류와 비즈니스를 위해 오는 10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제17차 세계한상대회”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국제한인식품주류상총연합회 회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한 우성



LARRY HOGAN  
GOVERNOR

STATE OF MARYLAND  
OFFICE OF THE GOVERNOR



Korean-American Grocers Association International  
Bi-Annual Journal

**A Message from Governor Larry Hogan**

Dear Friends:

It is my pleasure to provide a greeting message for the bi-annual journal published by Korean-American Grocers Association (KAGRO) International!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KAGRO International, and KAGRO of Maryland, for all they do for our state. KAGRO has worked tirelessly to ensure Korean-American-owned establishments have the resources they need in order to thrive in our nation. The State of Maryland celebrates your success, and is grateful for organizations like yours that support the business community.

I would like to thank everyone involved in the production of this journal, and I wish you all the best in the future.

Sincerely,

Larry Hogan  
Governor

STATE HOUSE, ANNAPOLIS, MARYLAND 21401  
(410) 974-3901 1-800-811-8336  
TTY USERS CALL VIA MD RELAY

# KAGRO NEWS

# KAGRO 뉴스



## 메릴랜드 한인식품주류협회



메릴랜드 캐그로(회장 도민고 김)가 신년파티장에서 장학금을 수여하고 받은 학생들과 함께

## 메릴랜드 캐그로 신년 파티 행사

메릴랜드 한인식품주류협회(회장 도민고 김)가 주최하는 신년파티 연회장에서 회원자녀 및 커뮤니티 학생 9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수여했다.

도민고 김 회장은 캐그로는 정부 관리 및 커뮤니티 리더들과의 미팅을 비롯 경제인들을 위한 문제 중재, 회원들을 위한 자원 제공, 공동 구매 등을 통해 회원들의 권익 옹호에 대한 참여와 한인사회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요섭 국제 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 회장을 비롯 한인상인 단체 대표, 주류 정치인 및 식품과 주류 관련업체 임직원들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며 시상식, 장학생 선발 및 경품추첨의 시간을 가졌다.



# KAGRO

## 알칸사 캐그로



알칸사 캐그로(회장 이창현)에서 주최한 장학금 수여식에 수상자들과 함께

## 장학금 수여식 및 송년의 밤 행사 열려

알칸사 식품협회(회장 이창현)에서 첫번째 장학금 수여식 및 송년의 밤 행사를 지난 12월에 열렸다.

이요섭 총연합회 회장을 비롯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알칸사 주지사의 축사도 이어졌으며, 10명의 학생, 2곳의 경찰서 그리고 3곳의 한글학교에 각각 장학금과 지원금이 전달됐다.

이번 행사는 알칸사에서 처음 치뤄진 장학금 수여 행사로 한인사회와 지역사회가 함께해 한인으로서 큰 자긍심을 느끼게하는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 덤스터사업 시작으로 매년 절감혜택

2017년 초에 시작한 덤스터(쓰레기통) 사업이 8월에 마무리되어 80여명의 회원 및 한인 업소들이 연간 \$50000.00

을 절약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단시간에 마무리가 되는것이 아니라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며, 다른 회사와의 계약이 남아 있기에 3년이 지나면 모든 회원이들의 계약 기간이 같아져 효과적인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알칸사 식품협회는 이사업을 전 국제 한인 식품 주류 상 총연합회의 각 지역협회와 협력해 더 나은 가격과 서비스로 전회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구상중에 있다.

## 서부 캘리포니아 캐그로



서부 캘리포니아 캐그로에서 주최한 장학금 수여식에 수상한 학생들과 함께

## KAGRO 송년의 밤·장학금 수여식

가주한미식품상협회(KAGRO)는 지난 11일 LA 한인타운 옥스포드팔레스 호텔에서 2017 송년의 밤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들과 장학생, 장학생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KAGRO는 이날 LA 지역 우수학생 13명에게 일인당 500~1,0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이들을 격려했다. KAGRO 관계자들과 장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워싱턴주 한인식품주류협회



워싱턴 캐그로가 주최한 장학금 수여식에 앞서 임원진들과 함께

## 경영인의 밤 행사 및 회장 이취임식

워싱턴주 한인 식품주류협회(회장 이정섭)은 지난해 11월 공항 인근 힐튼 호텔에서 '경영인의 밤' 송년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워싱턴주 한인 식품주류협회가 800여 회원업소를 이끌 33대 회장 및 이사장 취임식 및 재정지원을 요하는 워싱턴주 내 대학 신입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전달식도 함께 했다.

## 자체 브랜드 편의점 사업에 회원들의 적극적 동참 당부

워싱턴주 한인식품주류협회(Kagro-WA) 이정섭 회장은 금년정기총회를 통해 전년도 사업 결산 및 새로운 사업 운

	기업형 편의점	KAGRO 편의점
계약기간	10년~20년 단위	1년
가입비	4만~7만	1,000달러(정회원)
물건구입	지정된 곳	자유 구입
영업시간	정해짐	업소의 재량

영 계획을 발표했다.

사업계획에서 특징적인것은 ‘프로그램 스토어’라는 이름으로 회원들의 구매력을 한곳으로 묶어 구매원가절감을 통해 참여한 회원들의 이윤증가 및 브랜드 이미지 구축으로 고객들의 만족도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Kagro 브랜드’는 기업형 편의점과 독립형 편의점의 장점만을 취합해 대형 편의점과의 경쟁에서 회원들의 이익을 극대화 시킴으로써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 회장은 KAGRO와 제휴관계가 있는 업체 우선으로 구입하고 매월 판촉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업소를 위한 POS 설치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실보다는 득이 훨씬 많은 사업이 될것이다 설명했다.

## 중가주 한미식품주류 협회



중가주한미식품주류협회가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지역 11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협회 관계자들과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중가주 KAGRO 장학금 전달식,송년모임

중가주 한미식품주류협회(회장 장종희·이하 KAGRO)가 7일 오후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한국식당에서 장학금 전달식및 송년모임을 가졌다.

이날 몬트레이 지역의 모범적이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선정된 11명의 고교 학생에게 각각 장학증서와 500달러씩 총 5천 5백달러의 장학금을 전달됐다. 또 송년모임을 통해 회원들의 친목 도모와 협력업체,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장학생 대표로 출라 고등학교의 신시아 루이즈양은 “장학금을 통해 더 큰 꿈을 꾸게 된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 대학 진학 후 의사가 될 계획이며 훗날 나 도 지역 사회를 위해 돕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장종희 회장은 “장학금 지원사업이 24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회원들의 열정과 벤더들의 지원 덕분”이라면서 “어려운 경제지만 서로 힘과 지혜를 모아 난관을 잘 극복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의 꿈나무들을 위해 KAGRO는 앞으로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KAGRO는 협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루이스 카우치 디스트리뷰터 CEO, 글렌 엘리 일렉서 디스트리뷰터 CEO, 제시 이니구에즈 세븐일레븐 디스트리뷰터, 안상석 SV 체육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KAGRO 임원과 회원들, 엘릭서(Elyxir), 카우치(Couch) 등 협력업체 관계자들, 이성도 SF영사, 조건터 살리나스 시장, 이응찬 미주총연 부회장, 문순찬 민주평통 수석부회장, 낸시 코우토스키 몬트레이 교육청장, 신임 디넨 구스 몬트레이 교육청장, 김기덕 전 노인회장, 최재룡, 오영수 전 한인회장, 김희문 전 KAGRO회장, 손명자 한국학교 이사장, 윤범사 나눔봉사회 회장 등과 장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들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송년모임에서는 김일현씨의 꽃타령, 몬소리 사물놀이단이 영남사물놀이 공연을 펼쳤다. 또한 김진덕, 정경식 재단에서 행사를 위해 달력과 구강세트 등을 후원했다.

## 워싱턴 DC 캐그로

### 바우저 DC 시장 “대단한 지원에 감사”

워싱턴식품주류협회(회장 유홍규)가 28일 신년회를 겸해 제 29회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흑인 주민 자녀 11명과 협회 회원자녀 4명 등 1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유홍규 회장은 이날 저녁 DC 가톨릭대학 내 우크라이나 가톨릭 성당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류리엘 바우저 DC 시장을 비롯한 후원자들과 함께 학생들에게 1천달러씩 총 1



장학금 수혜자들이 유리엘 바우저 DC 시장, 유흥규 회장 및 후원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만5,000 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장학금 수혜자는 카메론 개드슨, 그레이스 패트리스 밀스, 재다 오스굿, 웨인 스미스, 자마리 랭카스터, 카리 맥켄지 콜맨, 마이카 로빈슨, 그레이스 여페즈, 애론 우즈, 크리스티나 테일러, 다이샤 댄슨 등 흑인학생 11명과 에스터 림 박, 강재석, 크리스 안, 민경원 등 한인학생 4명.

유흥규 회장은 “지난 한해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보다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리엘 바우저 DC 시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29년동안 한인식품주류협회가 커뮤니티에 기여하고 우리 학생들을 지원한 것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협회의 장학금 지원은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이라며 격찬했다.

김동기 총영사는 “식품주류협회에서 지역주민 및 회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 하는 것을 높게 평가하고 장학금 수상자들을 축하한다”면서



28일 캐그로 신년파티에 참석한 유리엘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오른쪽에서 2번째)이 여러 잔의 소주와 맥주를 섞는 이벤트를 성공시킨 후 환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유흥규 캐그로 회장, 바우저 시장, 유현숙 캐그로 회장 사모, 흥진섭 교문

“2주후에는 대한민국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만큼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요섭 국제 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 회장은 “식품주류협회가 협회 회원들의 권익뿐만 아니라 동포사회, 나아가 주류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바란다”고 말했다. 마크 장 MD 주하원의원은 “워싱턴한인식품주류협회의 차세대를 위한 투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협회는 버드와이저 등 장학금 후원업체에 감사패, 이요섭 국제 한인식품주류상 총연합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혜숙 DC 부시장, 피터 누삼 DC 경찰국장을 포함 400여명이 참석, 장학금 수혜자들을 축하하고 협회 관계자들 격려했다.

## 리치몬드 캐그로 장학금 수여식



리치몬드 캐그로 장학금 수여식에 캐그로 임원진들



총연합회 및 리치몬드 캐그로 임원진들과 장학금 수상자들이 함께 기념촬영

## 해리스버그 캐그로



해리스버그 캐그로에서 주최한 장학금 수여식에서 수상한 학생들과 함께

## Tito's Vodka 와 미팅



Tito's Vodka David Kent State Manager 와 미팅 김 형묵 부회장 동석



# KAGRO

# INTERNATIONAL JOURNAL

**ORCHID**  
GAMING | SMOKING | PATIO

**매릴랜드에서 유일하게 게임과 시가를  
즐길수 있는 풀서비스 파티오를 소개합니다**



**5월 2일 오픈**

welcome to

**Live!**

Arundel Mills에 위치. 21세 이상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간전하고 책임감있게 즐기십시오. 웹사이트 [mdgamblinghelp.org](http://mdgamblinghelp.org)나 전화 1-800-GAMBLER에서 도박중독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

CASINO • HOTEL  
AT ARUNDEL MILLS

# 한상네트워크 활성화로 인한 오프라인 컨벤션 2017년 세계한상대회



창원에서 열린 세계한상대회에 참여한 이요섭 캐그로 총연합회 회장 및 임원진들

지난해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제16차 ‘세계한상대회’가 창원에서 개최됐다.

세계 각국에 살고있는 동포들중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동포들을 특별히 ‘한상’이라고 부르는것에 이름지어진 ‘세계한상대회’로 한상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사업화하는 오프라인 컨벤션이다.

한상대회는 740만 재외동포의 경제자산을 하나로 결집하기 위해 재외동포재단이 행하는 가장 큰 규모의 경제

인 네트워크로 재외동포 기업과 국내기업, 특히 중소기업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있는 강국의 재외동포 기업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대회의 특징은 국내의 핵심문제인 청년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한상 & 청년, Go Togethe’라는 프로그램을 3년째 하고 있는데 인턴을 선별해 해외 한상기업에 내보내는 프로그램과 ‘한상 청년 파트너’라는 프로그램으로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해외 한상들이 그들의 경험과 방법을 알려주는 멘토 역할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또한 16년부터 ‘글로벌 한상드림’이라는 사단법인을 통해 국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이나 탈북자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급 등의 활동을 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요섭 국제한인식품주류상총연합회(KAGRO International)회장은 15대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협회로 자리매김해 화합과 친구세대의 소통, 협력업체 확대와 한인단체 및 타인종간의 협력 증진 등 다양한 계획과 실천방안을 밝혔다.



# 제17차 세계한상대회

THE 17TH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2018.10.23(화) ~ 10.25(목), 인천 송도컨벤시아

한민족경제인 최대의 비즈니스 장! '제17차 세계한상대회'가 오는 10월23일부터 3일간  
동북아 최고의 비즈니스 중심도시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 참여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 대회 개요

- 행사명 : 제17차 세계한상대회 (The 17th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 장소 : 송도컨벤시아(Songdo Convencia)
  - 주관 : 재외동포재단, 인천광역시, 매일경제-MBN
  - 주요프로그램 : 개·폐회식, 한상리더십컨퍼런스, 세미나, 비즈니스 네트워킹, 한상&청년 Go Together, 기업전시회, 일대일비즈니스미팅 등
  - 기간 : 2018.10.23(화)~10.25(목)
  - 주최 : 재외동포재단
  - 규모 : 3,500명(해외 1,000여명, 국내 2,500여명)
- ※ 자세한 사항은 [www.hansang.net](http://www.hansang.net)을 참고하세요.



재외동포재단에서는 국내 청년들에게 글로벌 역량강화 및 해외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한상기업에는 맞춤형 국내 우수인력 제공을 위해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한상분들께서 아래 운영계획을 참고하시어 해외진출을 꿈꾸는  
국내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사업 목적

- 한상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 청년의 글로벌 역량강화 및 해외진출 기회제공
- 차세대 한상 육성 및 한민족 경제영토 확장
- 한상기업 맞춤형 국내 우수인력 제공 및 국내 청년 실업 문제 해소에 기여

## 사업 개요

- 사업명 :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 사업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인원 : 150명(연), 기수제 운영
- 기간 : 6기(4월~7월), 7기(8월~10월)
- 인턴직무 : 디자인, 무역, 행정, 기술직 등 한상기업 요청 직무
- 인턴지원금 : 월 1백만원(청년인턴에게 지급)

## 일정 및 제출서류

### 가. 일정

- 6기 : 2018년 4월 16일(월) ~ 2018년 4월 30일(월), 18:00
- 7기 : 2018년 7월 30일(월) ~ 2018년 8월 13일(월), 18:00

### 나. 제출서류(온라인)

-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인턴채용 신청서
- 회사 소개서 및 회사 사진
- 현지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다. 접수 방법 : 한상넷([www.hansang.net](http://www.hansang.net))

- ※ 자세한 사항은 한상넷([www.hansang.net](http://www.hansang.net)) 청년인턴십을 참고하세요

## McDonald's to remove cheeseburgers from Happy Meal Menus in the US.

**They're lovin' healthier eating.**

McDonald's has announced plans to reduce the amount of calories in their Happy Meals in the US - by removing cheeseburgers from the menu.

Fast food chains are a big money-maker in the US, with a recent study revealing that 80 per cent of American adults eat fast food at least once a week.

However, the tides are shifting. More people are attempting to lead healthier lifestyles and it seems that McDonald's is following the trend.

McDonald's has announced plans to reconfigure the menu for their Happy Meals in the US in order to reduce their calorie content to 600 or less.

Cheeseburgers will be removed from the menu, the sugar content of the chocolate milk will be reduced and bottled water will appear as an option.

"We hope these actions will bring more choices to consumers and uniquely benefit millions of families, which

are important steps as we build a better McDonalds," chief executive officer Steve Easterbrook said in a statement reported by Bloomberg.

Although cheeseburgers will no longer feature on the Happy Meal menu, they can still be requested by customers.

The Centre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states that the percentage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fflicted with obesity in the US has increased by as much as three times since the 1970s.

McDonald's plans on reducing the calorie content of at least 50 per cent of its Happy Meals in 120 markets by the end of 2022.

Although the cheeseburger is still available on the Happy Meal menu in the UK, a representative from McDonald's has assured The Independent that all Happy Meals in the UK are already 510 calories or less.

McDonald's UK and Ireland has partnered with Mumsnet to add a new item to the Happy Meal menu, which is due to launch later this year.

The collaboration comes after parents on the parenting network requested more options on the menu, including a food item that wasn't fried.

"Mumsnet users tend to be pretty focussed on providing healthy food and snacks for their children, so the opportunity to help McDonald's develop a new Happy Meal option was too good to pass up," said Carrie Longton, co-founder of Mumsnet.

"We've taken big steps to improve our Happy Meal in recent years and reducing saturated fat, salt and sugar content across our menu remains a priority," said Emily Somers, vice president of food and marketing at McDonald's UK.

## Walmart ramps up grocery deliveries battle with Amazon's Whole Foods.



The retail giant has announced that it will expand its online grocery delivery service to 40% of American households by the end of the year, reports TechCrunch.

By that time, Walmart's grocery deliveries will be available in over 100 metro areas—up from the six metro areas it's currently available in. In total, Walmart will deliver groceries from 800 of its stores.

The move comes after Amazon announced last month that Whole Foods grocery delivery is available to Prime Now customers.

## With Amazon eyeing prescriptions, CVS gets into faster drug deliveries.



The retail giant has announced that it will expand its online grocery delivery service to 40% of American households by the end of the year, reports TechCrunch.

By that time, Walmart's grocery deliveries will be available in over 100 metro areas—up from the six metro areas it's currently available in. In total, Walmart will deliver groceries from 800 of its stores.

The move comes after Amazon announced last month that Whole Foods grocery delivery is available to Prime Now customers.

## Pepsi Sales Are Taking a Hit As the Company Pushes Non-Soda Options.



The retail giant has announced that it will expand its online grocery delivery service to 40% of American households by the end of the year, reports TechCrunch.

By that time, Walmart's grocery deliveries will be available in over 100 metro areas—up from the six metro areas it's currently available in. In total,

Walmart will deliver groceries from 800 of its stores.

The move comes after Amazon announced last month that Whole Foods grocery delivery is available to Prime Now customers.

## Coca-Cola Stories

### Sprite Cherry and Sprite Cherry Zero Become First National Brands Inspired by Coca-Cola Freestyle

When the Sprite team began exploring options for its next flavor innovation last year, consumer data from Coca-Cola Freestyle pointed to a fan favorite. Since the interactive fountain dispensers debuted in 2009, thirsty restaurant and retail guests have added a splash of cherry flavor to their beloved lemon-lime sparkling beverage.

“It was a huge ‘a-ha’ moment for us,” said Bobby Oliver, director, Sprite and citrus brands, Coca-Cola North America. “The fact that cherry was the number-one Sprite flavor mix on Coca-Cola Freestyle inspired us to create an



all-new, delicious product for fans in a convenient, on-the-go bottle.”

Sprite Cherry and its no-calorie sidekick, Sprite Cherry Zero, are now available nationwide in 20-oz. PET bottles. The new ex-

tensions combine the cool, crisp, refreshing taste of Sprite with a splash of cherry flavor. Both are made with 100 percent natural flavors, and both deliver the cut-through, thirst-quenching refreshment Sprite fans love.

The launch of Sprite Cherry and Sprite Cherry Zero marks the first time insights from Coca-Cola Freestyle inspired the national rollout of a new beverage. Oliver attributes Sprite’s popularity on Coca-Cola Freestyle to its crisp flavor profile, which pairs well with other flavors. “Because of its light, clean taste, it provides a great base for customization,” Oliver said. “Our innovation strategy has focused on staying true to the brand’s core heritage while adding refreshing twists.”

Formulations for the fountain and bottled versions of Sprite Cherry and Sprite Cherry Zero vary, with the most apparent difference being the color. Sprite with added cherry flavor on Coca-Cola Freestyle produces a red-tinted drink, whereas Sprite Cherry and Sprite Cherry Zero in 20-oz. PET bottles are clear.

These two permanent additions to the Sprite portfolio – which will be promoted via retail point of sale, sampling, outdoor advertising and the brand’s social media channels – follow previous limited-edition flavor innovations like Sprite Cranberry, Sprite Cranberry Zero, Sprite Tropical Mix and Sprite LeBron’s Mix.

Sprite Cherry Zero is the latest zero-sugar product innovation for Coca-Cola North America, joining a roster of nearly 250 zero-sugar beverages offered in the U.S. Oliver says he hopes the innovations will help recruit new fans – especially those with an affinity for cherry-flavored beverages

– into the Sprite portfolio. “And we also know that fans who love us constantly seek variety,” he added, noting the success of the aforementioned limited-edition flavors. “We see this as an opportunity to give them new reasons to drink another Sprite or Sprite Zero.”

Sprite is one of the fastest-growing sparkling beverages in the U.S., posting a 3.4 percent growth increase in retail sales in 2016 over the prior year. The brand made its Big Game debut earlier this month with the #WannaSprite campaign spot, “Tacos,” featuring LeBron James.

“This growth is being driven by our fans who love the product, the brand and everything Sprite stands for,” Oliver said. “We’re very excited about the business momentum Sprite has generated over the last few years, and we believe Sprite Cherry and Sprite Cherry Zero will help us keep the brand fresh and continue on this path.”

## Coca-Cola announces its first-ever alcoholic drink

Coca-Cola is launching the first alcoholic drink in its history with a canned liquor product in Japan.

The drinks giant will experiment with a canned beverage called Chu-Hi, made up of distilled Japanese drink shochu, sparkling water and flavoring.

“This is unique in our history. Coca-Cola has always focused entirely on non-alcoholic beverages, and this is a modest experiment for a specific slice of our market,” said Jorge Garduno, president of Coca-Cola’s Japan business unit, in a post on the company’s website.

Japan is a fiercely competitive market, Garduno added, with Coca-Cola launching 100 products a year in the country. “Experimentation is almost like a day-to-day ritual here. You can’t fall behind the rapid product cycle in Japan,” he said.



The company's sodas only made up about 25 percent of product sales by volume in Japan in 2016, while tea made up 27 percent of Japan's overall beverage consumption in the same year.

Coca-Cola also owns Georgia Coffee in Japan, which it claims is the world's highest-grossing canned coffee drink, making more than \$1 billion in annual sales. The country has a Food for Specified Health Uses (FOSHU) government certification, in light of its ageing population and fiber-fortified drink Coca-Cola Plus was FOSHU-approved in 2017.

Having certain drinks at particular times of day is more of an entrenched ritual in Japan than in other part of the world, said Khalil Younes, EVP of marketing and new businesses for Coca-Cola Japan, in a blog post. People might drink green tea with sushi, but opt for oolong tea with fattier Chinese food, for example.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Japanese drinks market, it's unlikely Chu-Hi drinks will launch in other countries, Gar-

duno said. "While many markets are becoming more like Japan, I think the culture here is still very unique and special, so many products that are born here will stay here."

## Coke Zero Sugar Launches in the United States



In July, Coca-Cola North America announced plans to give Coke Zero a new name, new look and even more delicious taste. And Coke Zero Sugar is off to a solid start.

In a Dec. 8 presentation at the Beverage Digest "Future Smarts" conference, Incoming Coca-Cola North America President Jim Dinkins credited an improved recipe, popular packaging and targeted marketing focused on the brand's partnership with ESPN College GameDay with delivering a "7 percent change in the trajectory of the business" and double-digit growth for the brand.

# NATIONALLY RANKED LOAN OFFICER READY TO FOCUS ON YOU

## 재용자 - 매수 - 투자 자산 - 두번째 주택

**Mortgage Solutions to Match Your Needs**  
**Experienced Lender & Full Staff of Mortgage Specialists**  
**Provide Application-to-Closing Service**  
**No-Closing-Cost Refinance Options Available**  
*for qualifying applicants*

**지금 전화주세요! 240.406.1130 – Mehdi Pirzadeh**  
**한국어 서비스 Sandy Chung - 240.406.1875**



**Mehdi Pirzadeh, VP/Senior Mortgage Banker**  
 Office 240.406.1130 | Cell 301.332.4260 | eFax 301.841.9812  
 MPirzadeh@EagleBankCorp.com | NMLS #189912



# 경제 뉴스



## LG,미국내 기업평판 30위 안에 들어



미국여론조사기관 ‘해리스폰’이 최근 발표한 ‘2018년 기업평판지수 (Harris Poll Reputation Quotient 2018)’에 따르면 LG가 평점 78.92점을 기록하며 25위에 올라섰다.

삼성은 평점 77.56점을 기록해 35위로 지난해 보다 비교적 큰폭의 수직 상승을 기록했으나 2014~16년까지 3년 연속 ‘톱 10’ 명단에 포함됐던 것과 비교하면 저조한 성적이다.

LG는 2016년 41위 작년엔 100위 밖으로 밀려났으나 큰폭의 수직 상승으로 구글 (28위), 애플 (29위), 소니 (31위) 등을 모두 제치고 현대차 (56위)도 따돌렸다.

이번 결과는 해리스폰이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미국 성인 소비자 2만 5천 8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 호감도, 기업비전 등을 조사해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3년 연속 아마존이 1위를 차지했으며, 미국 식료품 체인 웨그먼스와 전기차기업 테슬라가 각각 그 뒤를 이었다.

##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 법안 승인

볼티모어 시내 스티로폼 식품용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몽고메리와 PG 카운티, 워싱턴 DC에 이어 시장의 서명을 거친 후 18개월의 적응기간을 거친 뒤 위반업주에게 경범죄로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캐스린 퓨 시장은 입법안에 서명할 의사를 밝혔으며, 이외에도 식당 메뉴에 어린이 음식과 당분 함유 음료수를 함께 보이지 않도록 제안하는 법안도 승인했다.

## 해외 이주자 ‘거주여권’ 폐지



한국 영주권자 등 외국 이주자들에게 별도로 발급해오던 한국의 ‘거주여권’이 55년만에 사라진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내 한인 영주권자 등 해외 이주자들에게 발급돼 오던 거주여권을 폐지하는 법령이 지난해 21일부터 발효돼 더 이상 발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거주 여권은 그동안 해외 영주권 취득으로 한국 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국외 이주자들의 한국내 신분 증명을 위해

별도로 발급돼왔다.

그러나 지난 2015년부터 재외국민들도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거주여권 제도의 필요성이 사라졌고, 이에 따라 한국 국회에서 거주여권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해외이주법이 개정돼 지난해 12월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영주권자들도 한국내 거주자들과 동일한 일반 여권을 발급받게 된다.

## 시애틀정부와 우버간의 입씨름

시애틀 시정부가 우버 택시 요금을 두배 인상하려 든다고 우버 측이 고객들에게 고자질한 말은 허위이며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당국자가 해명했다.

관련 결의안을 추진 중인 브루스 하렐 시의회 의장은 “시애틀 관내 모든 사설 택시회사들의 운전자들도 시애틀시가 제정한 최저임금법에 근거해 최저수준의 보수를 받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3일 시의회 관련 소위원회에서 처음 논의된 하렐 시의원의 결의안 초안은 운송 네트워크 컴퍼니(TNC)로도 불리는 유사택시는 물론 대절택시와 일반 택시 운전자들과 관련된 모든 법령과 규정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이들에 최저요금을 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버는 지난 2일 오전 시애틀 고객들에게 “시정부가 요금을 2배 인상하려 든다”는 제목의 이메일 통지문을 발송하고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될 경우 기존 고객들 중 상당수가 이용할 수 없게되며 운행 횟수도 줄어 운전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 미국 최대 인구 증가도시 - 댈러스, 휴스턴, 애틀랜타 뒤이어

미국 10대 도시권 가운데 지난해 인구가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텍사스 주 댈러스,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한 곳은 일리노이 주 시카고로 3년 연속 감소가 확인됐다.

3월 22일 미 연방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텍사스 주 댈러스 대도시권(댈러스-포트워스-알링턴) 인구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14만6천238명 증가하며 740만여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신생아 수(10만2천423명)가 사망자 수(4만5천826명)를 크게 상회했고, 국내 전입자 수가 전출자보다 5만8천829명 많아 미국내 최고를 기록했으며, 해외 유입 인구도 3만798명에 달했다.

그 다음 인구 증가분이 많았던 대도시권은 텍사스 주 휴스턴(9만4천417명), 이어 애틀랜타(8만9천13명), 워싱턴 DC(6만5천908명) 순으로 텍사스 주 2개 권역의 인구가 무려 24만여 명 늘어나는 등 남부 인구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3대 도시 시카고 대도시권 인구는 전년보다 1만3천300명 더 줄어든 950만여 명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신생아 수(11만5천915명)가 사망자 수(7만2천491명)를 웃돌고 해외 유입 인구(2만8천302명)도 적지 않았으나 국내 유출 규모(8만5천177명)를 상쇄하지 못했다.

시카고 트리뷴은 시카고 대도시권 인구가 원거리 교외 도시 및 인근 인디애나·위스콘신 주로 옮겨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10대 도시권 순위는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곳은 뉴욕-뉴욕크-저지시티(뉴욕·뉴저지 주) 지역으로 인구 규모는 총 2천30만 명에 달한다.

이어 2위 로스앤젤레스-롱비치-애너하임(캘리포니아) 1천340만 명, 3위 시카고 대도시권(일리노이) 950만



명, 4위 델러스-포트워스-알링턴(텍사스) 740만 명, 5위 휴스턴 대도시권(텍사스) 690만 명, 6위 워싱턴DC-알링턴-알렉산드리아(버지니아·메릴랜드·웨스트버지니아) 620만 명, 7위 마이애미-포트로더데일-웨스트팜비치(플로리다) 620만 명, 8위 필라델피아 대도시권(펜실베이니아·뉴저지·델라웨어·메릴랜드) 610만 명, 9위 애틀랜타 대도시권(조지아) 590만 명, 10위 보스턴-케임브리지-뉴턴(매사추세츠·뉴햄프셔) 480만 명 등이다.

해외 인구 유입 규모는 뉴욕이 16만842명으로 가장 컸고, 이어 로스앤젤레스 6만3천83명, 워싱턴DC 4만4천760명, 휴스턴 4만3천94명, 보스턴 3만5천142명 등으로 파악됐다.

눈에 띄는 점은 델러스와 애틀랜타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도시권에서 국내 전출 인구가 전입 인구를 압도한 사실이다. 국내 전출에 의한 인구 감소 규모는 뉴욕(-20만8천863명), 로스앤젤레스(-10만9천669명), 시카고(-8만5천177명), 샌프란시스코(-2만3천973명), 워싱턴DC(-2만1천54명), 보스턴(-1만8천252명), 필라델피아(-1만8천149명), 휴스턴(-1만372명) 순으로 컸다.

한편 미국 인구조사국이 집계한 미국 전체 인구는 22일 현재 3억2천739만여 명, 세계 인구는 74억6천167만여 명이다.

## 미, '무역 전쟁' 속 중국과 타협안 가능성 있나?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지구 상에서 경제력 1·2위를 다투는 두 나라가 통상 갈등을 빚게 된 원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 무역주의' 선언과 관련이 깊다.

전쟁의 서막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 때 이미 예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중국 제품 등에 높은 관세를 물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 '중국의 경제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중국은 기술이전을 강요하고 사이버 도둑질을 했다"라고 언급한 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역사상 가장 큰 적자"라며 관세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중국에 '관세 폭탄'을 매기겠다고 선언하자 중국 정부도 곧바로 보복 조치에 나선 바 있다.

중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다음달인 3월23일 미국산 신선·건조 과일과 와인, 강관 등 120개 품목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산 돈육과 재활용 알루미늄 등 8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당시 중국 상무부가 언급한 관세 인상 품목의 중국 내 수입 규모는 연간 30억 달러 수준이다. 미국이 주장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기술이전 강요에 따른 피해액(연간 500억 달러)보다 작다.

그러나 과일 등 농산물의 주요 생산지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가 많은 지역이라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큰 정치적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관세 부가 방침을 밝히면서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미·중 협상은 미국 국내법이 아닌 국제규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라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온도를 높여가던 두 나라의 무역 충돌은 힘겨루기 국면에서 봉합되지 못하고 더욱 악화됐다. 미국이 4일 추가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중국산 수입품 1300개 품목을 발표하고, 해당 품목에 대해 25%의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수입품 항목은 고성능 의료기기와 바이오 신약 기술 및 제약 원료 물질, 산업용 로봇, 전기차, 발광 다이오드, 반도체 등이다.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제조 2025' 정책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는 미래산업용 품목들로, 중국의 첨단기술 육성 정책에 타격을 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만 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이 '지적 재산권'에 대해 덜 신경쓰는것에 크게 이슈화 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의 발표 뒤 한 시간 만에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가 같은날 공개한 조치를 보면, 미국산 대두와 자동차, 화공품, 항공기 등 106개 제품에 대해 모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2017년 기준 중국에 수입된 미국 산 제품 가운데 500억 달러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언급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폭탄'을 주고 받으며 무역 전면전으로 치닫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통상 갈등에 따른 후폭풍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4월4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한국이 미국·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은 전체 수출액의 36.7%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한국무역협회는 "대만·일본 다음으로 비중이 높다"라며 "미국이 중국에 수입을 규제하면, 한국·일본·독일 등은 대중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이 커 수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내다봤다.

한국무역협회는 두 나라 사이의 통상 분쟁이 다른 품목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에 실패해 500억 달러 규모의 품목에 대한 제한적인 통상 제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미국이 제한적인 대중국 통상 제재에 나설 경우 한국의 수출액이 1억9000달러 정도 줄어들 수 있지만, 통상 분쟁이 확대될 경우에는 367억 달러까지 감소할 수 있다.





## 끝없는 식욕으로 미국 경제의 공포의 대상으로 자리한 아마존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아마존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가총액 3위에 오른 것과 관련, “아마존의 끝없는 식욕이 미국 경제에 악몽이 되고 있다”는 기사에서 이같이 전했다.

1994년 제프 베저스가 자신의 차고에서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한 아마존은 24년 만에 미국 온라인 소비 지출의 40%를 장악하고 있고, 54%의 미국 가정을 ‘아마존 프라임’ 회원으로 만들었다. 또 콘텐츠 분야에서는 할리우드의 지배자 가운데 하나가 됐을 뿐 아니라, 최근 가장 주목 받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선두주자이자 AI(인공지능) 비서 플랫폼의 최강자다.

사이버 공간에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보유한 부동산 총액을 합하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90개에 필적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하며, 매출은 1천780억 달러에 달하고 12일 현재 시가총액은 7천700억 달러로, 애플,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에 이어 시총 3위 기업이 됐다.

지난해 베저스 CEO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를 제치고 세계 최고 부자로 등극했다.

블룸버그는 “아마존의 지배력은 책, 전자제품,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소포 배달, 슈퍼마켓, 식품, 의류, 트럭 영업, 자동차 부품, 의약품, 부동산 중개, 화장품, 콘서트 티켓 발권업, 은행업 등 모든 산업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마존이 침입하는 산업에서 기존 기업들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심지어 아마존이 특정 분야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루머만 돌아도 관련 산업의 주가가 폭락하는 ‘아마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지난해 미국 대기업 경영진이 투자자들과의 컨퍼런스콜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트럼프나 세금이 아닌 ‘아마존’이었다고 한다.

스마트 홈 스타트업인 ‘링’을 인수하자 관련 산업이 모두 아마존의 행보를 바라보고 있고, 아마존이 배송 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한 뒤 1천260억 달러의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페덱스와 UPS는 힘을 잃고 아마존이 제2 본사를 북미 지역에 짓겠다고 밝히자 미국과 캐나다의 238개 도시가 신청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과거 구글이나 제록스 같은 회사의 명칭이 동사로 사용된 적이 있지만, 이는 그 제품의 성질과 관련된 것이었다”면서 “이제 ‘아마존 되다 (To be Amazoned)’는 의미는 아마존이 당신의 산업계에 진출했기 때문에 당신의 사업이 붕괴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꼬집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어떤 IT 기업도 이런 지배력을 보인 적이 없으며, 각 산업 기존 업체들의 견제가 강해지면서 아마존이 어느 때보다 위험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지금으로써는 베저스의 야망과 힘을 억누를 수 있는 어떤 시도도 찾아보기 힘들고, 그는 모든 테이블에서 원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고 말했다.



Visit us at [www.kagro.org](http://www.kagro.org)

Our organization profile

Advertising opportunity for KAGRO Journal

Link for various KAGRO capture and Affiliate Organizations.

## 원고를 모집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경험담이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 또는 여러분의 의견과 잡지에 대해 느끼신점 반영되었으면 하는 의견들 그리고 사업운영하며 협회에 건의사항 등 모든글들을 환영 합니다. 영어나 한글 편하신 언어로 사진 · 연락처와 함께 email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end your submission to : [info@kagro.org](mailto:info@kagro.org)

9749 Traville Gateway Dr, Rockville, MD 20850 U.S.A

## Advertising space available for KAGRO Journal

KAGRO Journal Ad ask Yo Sup Lee 301-996-3146

9749 Traville Gateway Dr, Rockville, MD 20850 U.S.A

Email : [info@kagro.org](mailto:info@kagro.org)



# 건강뉴스



## 백세인생 건강하게 살기위해 필요한 것은?

### 삶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실현위한 '9대 미래전략'

백세 시대를 앞에 두고 있는 최근 인구고령화에 따른 치매 등 퇴행성 뇌신경질환과 심혈관 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 지구온난화로 인한 갑작스러운 기상이변, 메르스와 같은 유행병의 세계화 등 안정된 삶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해 삶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9대 미래전략을 마련해 발표했다. 미래부는 지난해 미래준비위원회회를 발족시켜 삶의 질이 환경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과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증명한 '미래이슈분석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준비위는

삶의 질과 관련해 미래사회 변화를 전망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과 전문가 설문조사를 병행해 정책적 제언을 도출해 냈다.

위원회는 이번에 '삶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건강, 문화·편리, 환경 3개 분야에서 각각 3가지의 전략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건강분야에

서는 뇌 신경 혈관질환 예방 및 극복, 스마트 헬스케어의 보편화, 만성질환 및 난치병 맞춤형 치료기술 개발이 꼽혔고 문화·편리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의 활용 확산, 스마트 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증강현실을 활용한 첨단 문화 인프라 조성이 환경분야에서는 체계적 재난재해 및 환경오염 대응시스템 구축, 신재생 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활용확산, 온실가스 예방 및 저감을 통한 국제사회 기여 등이 꼽혔다.

보고서 대표저자인 카이스트 바이오및뇌공학과 정재승 교수는 "최근 삶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는 환경문제, 건강문제 등 과학기술 및 ICT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는 삶의 질과 관련한 미래 사회변화를 전망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래부는 국민들과 정부 부처의 미래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보고서를책으로출판한다고 밝혔다.



건강 	1 뇌·신경·혈관질환 예방 및 극복
	2 스마트 헬스케어의 보편화
	3 만성질환·난치병 맞춤형 치료기술 개발
문화·편리 	4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 확산
	5 스마트 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6 증강현실을 활용한 첨단문화 인프라 조성
환경 	7 체계적 재난재해·환경오염 대응 시스템 구축
	8 신재생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활용 확산
	9 온실가스 예방 및 저감을 통한 국제사회 기여



# Budweiser



완벽한 조화.  
깊고 순수한 맛.

# KAGRO International 지역협회

KAGRO International	회장 이요섭 이사장 송기봉	Lee, Yo Sup Song, Ki Bong
Arkansas	회장 이창현 이사장 정형길	Lee, Seung Soo Chung, Hyung Gil
Arizona	회장 최인준	Choe, Calvin
Southern California	회장 김중철 이사장 박재현	Kim, Mike Park, Jay
Central California	회장 장종희 이사장 지대현	Chang, Jong Hee Chi, Day Hyun
Chicago	회장 김세기 이사장 김창석	Kim, Se Gi Kim, Chang Suk
Colorado	회장 서천룡 이사장 연규산	Seo, John Yeon, Sean
Dallas	회장 이상근	Lee, Sang Kun
Delaware	회장 송영석 이사장 최기철	Song, Mike Choi, Ki Chul
Georgia	회장 김백규 이사장 김봉수	Kim, Baik Kyu Kim, Bong Soo
Harrisburg, PA	회장 조종진 이사장 나광열	Cho, Chong Na, Kwang Yol

Hawaii	회장 안경일	Ahn, Kyung Il
Maryland	회장 김도민고 이사장 김재만	Kim, Domingo Kim, Jae Man
New York	회장 박광민 이사장 이종식	Park, Kwangmin Lee, Chong Sik
Northern California	회장 김복기	Kim, Bok Ki
Oregon	회장 유명만 이사장 김문홍	Yoo, Young Man Kim, Moon Hong
Philadelphia	회장 이승수 이사장 이창희	Lee, Seoung Soo Lee, Justin
Tennessee	회장 박정식	Park, Jung Sik
Virginia	회장 김윤옥 이사장 이봉순	Kim, Yun Ok Nelson Yi, Pong Sun
Washington D.C	회장 John Yoo 이사장 박인석	Yoo, John Pak, In Suk
Washington	회장 이정섭 이사장 방옥철	Yi, Jung Bang, Ok Chul
Manitoba, Canada	회장 김익주 이사장 이관주	Gim, Ikjoo Lee, Kwan Ju

## 스폰서

Miller Brewing Company / Anheuser Bush Inc / Coors Brewing Co  
 CoCa Cola USA, Inc / PEPSICO / KT&G USA  
 Maryland Live! Casino & Hotel / Eagle Bank



timeless  
**TIME**  
 CIGARETTE  
 Smooth & Rich



**SURGEON GENERAL'S WARNING:** Quitting Smoking Now Greatly Reduces Serious Risks to Your Health.

**CONTACT US:**

*If you want to add to your profits with our  
 NEW 2018 DISTRIBUTOR & RETAIL PROGRAMS!*

Phone: 1-214-299-4202  
 Fax: 1-214-299-4207  
 info@ktngusa.com  
 www.ktngusa.com

COLD FILTERED. COLD AGED.  
**COLD INSPIRED.**

